

第225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13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보고
2.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6.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7.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8.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견

審査된案件

1.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보고	2
2.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설훈·김경천·임종석·전용학· 김화중·김성호 의원 외 20인 발의)	24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만제·안경률· 김기배·박혁규·이성현·서청원·박종희·강인섭·정인봉·정병국·심규철·김문수·이방호·손태인·최연희· 윤경식·황우여·조정무·이인기·전재희·이윤성 의원 발의)	24
5. 2002년도예산안(계속)	27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6.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부영 의원 대표발의)(조부영·강창희·김종필·김종호·김학원·송광호· 오장섭·이양희·이완구·이재선·이한동·안대륜·원철희·정우택·정진석·조희욱·함석재·강숙자·김용환· 한승수 의원 발의)	28
7.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창달·이규택·이재오· 조정무·현승일 의원 외 125인 발의)	28
8.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견	28

(15시18분 개의)

○委員長 李揆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金漢根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揆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고는 오는 11월21일 국무총리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법안 3건을 각각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

론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계속 상정해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대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고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보고

(15시21분)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成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서 나오셔서 200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번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70여만 명의 수험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저와 같이 나오신 이번 출제위원장을 맡으신 安希洙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출제에서 총괄부위원장을 맡으신 이화여자대학교 成泰濟 교수입니다.

다음에 평가부위원장을 맡은 저희 평가원의 연구부장 南明浩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개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발전과정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단을 구성한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출제단을 발족시키기 전에 평가원에서 이번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 온 내용, 다음에는 출제본부가 설치되고 난 다음 출제하는 과정과 이번 수능 실시 후에 잠정적으로 수집한 여론 등을 이번에 출제위원장을 맡으신 安希洙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기능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교수-학습방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교육평가의 연구 등등이 있고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가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뿐만 아

니라 중등교사 신규임용, 초등교사 신규임용 등 많은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평가원의 조직은 우선 고사관리본부가 있는데 이 고사관리본부는 각종 시험의 행정 지원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예산내역은 294억 8900만 원 정도 되고 특히 수학능력시험은 수험자 1인당 2만 원씩 수험료를 받아서 150억 원 정도이고 이 중 약 68%가 시·도 시험관리경비로 1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학능력시험 경비 속에는 수학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로 쓸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희 평가원에는 연구직 63명이 있습니다. 이 63명 중 54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 중에 여자 박사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업 적성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내용에 맞추어서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가 대학입학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만 이제는 학생부,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로서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국 규모로 표준화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이 수학능력시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시험의 수준과 그 문항의 질이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과 고등학교 교실에서 행하는 수업방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력고사와의 차이점은 생략하고 2002년도 수능시험의 특별한 변화는 과거에 총점을 표기하던 것을 없애고 성적도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정수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등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저희가 한·중·일 대학입학고사에 관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질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앞서 간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2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단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국 68개 대학에 계시는 139명의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 12

명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교사를 출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출제하는 기간이 각급 학교가 수학능력시험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3학년의 출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을 모셔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제위원을 구성할 때는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검토위원단 선정입니다.

검토위원단은 각 시·도의 고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71개의 고등학교에서 71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검토위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주요한 기능은 출제된 문제의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혹시 이미 출제된 문제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특정 참고서 속에 있는 문제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식별하고 또 난이도 조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신 출제위원들 중 제2외국어는 작년과 금년 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2외국어 출제위원 37명을 제외하고 103명이 언어 등 5개 영역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58명, 56%가 1회 이상의 출제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출제위원장님은 4회를 참여하셨고 총괄부위원장은 두 번, 평가는 세 번, 언어영역은 여섯 번, 수리는 다섯 번, 영어는 네 번 등 출제를 담당한 위원장들은 다수의 출제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위원단을 구성한 주요배경은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77.5였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셔서 이번에 출제를 하면 참 적절하겠다고 해서 2000학년도 77.5대의 출제 경험을 상기해서 그때보다 약간 쉽게 2002학년도 출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분들을 주로 모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성태제 교수를 비롯, 몇 분을 모셔서 이미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고 작년도 수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등급산출을 어떻게 할지, 표기를 어떻게 할지 등등을 자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 전문학자 11명으로 수학능력시험 특임팀을 구성해서 3월부터 이분들에게 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의 모든 문제를 문항마다 난이도·타당도를 전부 집중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마치 병아리감정사가 병아리를 보면 암놈인지 수놈인지 알듯이 문제의 문항을 보면 ‘아, 이것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졸업생과 재학생의 학력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모의고사 성적을 모아서 이것을 분석하게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고3학생에 대한 전국 규모의 모의고사 자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설학원의 입시담당 전문가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 성적차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난이도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출제위원단들이 구성되어서 출발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수학능력시험문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선 50% 집단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4.2로서 이것을 부적편파라고 합니다마는 잘하는 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서 잘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는 대학의 불평이 있을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능력의 경우에는 상위 50% 집단의 평균이 96점이고, 심지어 언어영역의 듣기 6개 문항은 한 8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98%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답지만 보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암기위주와 단순훈련을 요구하는 문제도 다수 있었고, 역배점 논란도 있었고, 또 이렇게 부적편파가 되다 보니까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는 데 타당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험이 물수능이라는 여론의 지

탄을 받고 수학능력시험 자체의 무용론까지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수학능력시험 본래의 성격을 살리고자 다소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수학능력시험 주요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94년도부터 출발했습니다. 94년도의 경우는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3개월 차이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현상은 1회 때 출제하신 분의 80%가 2회 출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본 학생들은 동일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점이 만점인데 30점의 난이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 시간을 달리해서 출제를 하고 동일한 집단이 시험을 보는데도 난이도를 맞춘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의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98학년도부터 쉬운 수학능력시험정책으로 계속 쉬워져 가는 것이 보이는데 특히 2001학년도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쉬워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2학년도 수능시험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능출제단이 발족되기 전에 목표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2001년3월에 시험계획을 발표할 때 금년도 수학능력시험은 77.5±2.5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물수능 사태 이후에 2000년12월1일 관계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01학년도 84.2보다는 어렵고 2000학년도 77.5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교육부총리께서 전화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것은 지난 11월8일 예결위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학년도, 2000학년도, 99학년도 수능과 각종 모의고사 자료를 수집해서 했고 그다음에 재학생의 학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실증적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수생이 7만여 명 감소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출제위원단이 출제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 77.5±2.5는 75에서 80점인데 77.5에서 80점 사이로 맞춰주고 특히 80점으

로 난이도를 조정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안희수 교수님 등 출제위원단에게 제가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출제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출제위원장 안희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에 특히 문제가 된 수능에 관해서 출제위원단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고맙고 또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출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국민이나 여러 학부모들께서 출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조정을 할 수 없느냐?” “출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많이 제시되는 것을 듣고 언젠가는 한번 출제과정에 대해서, 출제계획을 얼마나 잘 세워서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그 기회가 와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 5분 정도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李揆澤 예.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우선 16페이지에 출제업무가 추진되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일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진 과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출제위원들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출제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이미 평가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출제위원단을 이끌고 출제본부로 일단 들어가면 외부하고 통신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다 단절되고 독립국처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원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출제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듣고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난이도 문제를 포함해서 출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이

를테면 1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출제의 목표는 77.5 ± 2.5 정도로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과 함께, 그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작년도보다는 좀 어렵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재작년에도 제가 출제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무난히 넘겼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금년도에 다시 한번 맡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내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 작년과 재작년의 중간, 뭐 중간이라고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에 들어가는 난이도 정도로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역배점, 역배점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쉬운 문제에 점수를 많이 주고 어려운 문제에 점수를 조금 줌으로써 뭔가 조절하는 것을 역배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 말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이 출제될 때마다 가끔 논란이 되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 과목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험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 문제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쪽이었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변별력의 활성화, 시험의 최대목표는 결국은 변별력이니깐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런 난이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나 차후로는 표준화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학생들을 표준점수로 하려면 원 점수 자체도 어느 정도 정상 분포에 가까워야만이 표준점수가 잘 나오게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표준점수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 분포는 하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의 부탁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총괄부위원장, 평가부위원장, 기타 영역별부위원장들과 같이 죽 출제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이 16페이지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제위원단의 규모는 139명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17페이지에 ‘문항제작 및 편집절차’ 부분에 출제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이 출제계획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은 이

원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영역의 영어 같은 경우 문법문제만 일방적으로 많이 낸다든지 작문문제만 많이 낸다든지 단어문제만 많이 내는 어떤 편향을 막기 위해서 각 과목별로 문법, 독해력, 이해력 등의 카테고리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5문제씩 배치하고, 과학영역의 경우 물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역학, 전자기학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이차원 분포가 되도록 해서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도록 분포하게 만드는 것이 이원 분류표입니다.

일단 이것을 작성해서 그것이 우리 위원장단에 들어와서 이것은 됐다하면 그때부터 출제에 들어가는데 대체로 들어간 지 5~6일 정도에 출제하게 됩니다. 이때 출제위원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대체로 한 분이 5~6문제, 좀 많을 경우에는 10문제까지 출제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 이 문제의 수를 보고 한 달이나 들어가 있으면서 대여섯 문제밖에 못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노력 그야말로 심적인 고통을 동반한 작업으로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벌써 열 차례에 걸쳐서 수능이 시행되어 왔는데 그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제를 내야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수많은 기관에서 예상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상문제 어떤 것하고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다 피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때는 출제위원들이 대체로 말수가 적어지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히스테리 또는 피부에 가려움증 이런 것이 발생해서 출제위원장으로서 이때 제일 마음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그 문제를 제출해서 물리면 물리, 역사면 역사분야의 교수들이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됐다.’ ‘이것은 안 된다.’ 또는 ‘거기에 하자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일단 거기를 통과

하고 나면 그것이 1차 통과가 됩니다.

1차 통과가 되어서 요구한 문항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영역별로 다시 말하면……

○李在禎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수능시험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캐기 위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제방법이나 경위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 아주 집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장님으로부터 77.5 ± 2.5 의 범위에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를 출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를 내도록 모든 출제위원과 나중에 나오는 검토위원, 검토위원은 71명의 현직 교사들로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보고 그것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에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난이도를 주문한 대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 속에는 과거처럼 척 봐서 이것이 답이다 하는 이런 것을 없게 하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험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은 다 교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로서의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 중 어느 한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77.5 ± 2.5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각자 각 문항에 대해서 이것은 몇 점 정도, 이것은 몇 점 정도 해서 그것을 전부 평균해서 77.5 ± 2.5 범위 내 정도의 문항이 구성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만들 당시의 그것하고 나온 다음에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 것하고 그 난이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在禎委員 지금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난이도를 측정해서 낸 것과 실제 그것을 시험본 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예.

제가 그 문제를 잠깐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수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어느 교직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수업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낼 때 이 시험문제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대부분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5문제 정도 내고 다음에 이것은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냈으면 적어도 학생들이 평균 80점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받아보고 교수나 선생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이 녀석들 공부 안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점수가 낮은 데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해서 ‘아 금년도는 공부들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신이 예상해서 낸 것하고 결과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지금 출제위원장이신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안희수라고 합니다.

○金貞淑 委員 결과적으로 잘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으신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내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 委員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어디에선가 들었어요.

교육의 목적이 뭐니까? 학생들이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시험을 보고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울고 불고 자기들 실력발휘를 못 해서 억울하다고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어디엔가 임시접수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많은 아이들이 아예 재수하겠다고 학원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능출제위원장은 계속 걸도는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늦게 들어와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잠깐 앉아서 들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생

각을 하시는 분들로 출제위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수능시험이 이 모양 이 꼴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학교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도 없는 교육을 시키고 또 공부하는 시험문제를 풀 수도 없는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시켜 놓고 시험에서는 아주 엉뚱한 문제들을 어렵게 냈는데 시험문제 잘 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문제 쉽게 내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변별력을 조금 갖게 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내년에는 조금 어렵게 내겠다고 했어요. 조금 어렵게 내겠다고 그랬으면 금년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시킨 수준과 내용으로 내야 되는데 전부 대학교수들이 와서 냈어요.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애들하고 매일 매일 호흡을 같이 하고 이 정도면 애들이 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의력이 없는 애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아이들 심리를 잘 아는, 실제로 매일 매일 부딪치는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가서 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학원에 가고있기 때문에 학원의 유명한 강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무슨 대학교수들이 저렇게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수 30년을 했다면서 이렇게 모릅니까?

대학교수들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전부 모아다가..... 여기에 교사들을 10명 넣었다고 하지만 언어하고 사회, 제2외국어에만 들어갔어요. 전체 출제위원 200 몇 명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10명 집어넣고, 어제 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선생님들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출제위원들은 대학교수 30년이다, 20년이다 자랑하는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엉터리들이예요. 그것도 좋아요. 작년 재수생 없고 재작년 재수생 없고 금년 아이들만 갖고 한다면 금년 같은 문제수준에서 아주 잘 하는 아이들은 별로 손해 안 봐요. 그러나 아주 잘하는 애들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하니까 전부 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중하위에 있는 아이들은 아예 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어떻게 적절한 과에 애들을 수준에 맞추어서 뽑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망쳐놓은 책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잘

했다고 합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출제위원장이 잘했다고 그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도 좋고 밤을 새도 좋습니다. 저하고 한번 논쟁 붙어 봅시다.

그런데 이런 분을 출제위원장으로 앉혀 놓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분이예요? 국회 분위기를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揆澤 金貞淑 위원님, 이따 질의때 하시고 보고 다 끝났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난이도에 대한 것을 줄여서 말씀하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히 난이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우선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학능력시험 관련보고를 듣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통보한 바 있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의순서 없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질의순서를 결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金貞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동안에 빨리 질의순서 받으세요.

○金貞淑 委員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출제위원장 보고하실 때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뭔가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금년 아이들 시험 한번 망쳐 버리면 일생이 좌우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어른들은 말할 수 있어도 이 상황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자기 인생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잘했다,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출제위원장께 묻고 싶어요. 지난 3년동안 고등학교에서 현재 고3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현실을 아시느냐고요. 그 현실을 전혀 모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면 뭐 합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은 李海瓚 장관이 말로는 그랬지요. 한 과목만 잘해도 되고 사교육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준다고, 그리고는 1시, 2시에 왔어요. 이번에 시험 본 우리집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집에 1시, 2시에 와요. 교육청에서는 과외공부 못 시키게, 애들 못 잡아 놓게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청담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그 동네 학교들 전부 담합해서 한 두시에 일찍 보내 버려요. 아이들 보고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혼자 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느냐, 안 해도 자기 반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학교에서 뺨튀기 점수를 주니까요. 그것이 과거 3년간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과정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작년보다 문제가 더 쉬웠어 야지요. 작년 고3 아이들하고 이번 고3 아이들하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비교했더니 50점 차이가 나요. 모의고사 결과를 난리가 날까 봐 발표 못 했어요. 내가 거기 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평균 50점 차이가 난답디다. 50점 차이가 나는 애들을 놓고 작년 아이들하고 공개경쟁을 시켜서 문제는 얼토당토 않게 어렵게 냈습니까? 어렵게 냈어도 어지간히 어렵게 내야지요.

제가 일요일에 대성학원에서 이화여대에 나가서 분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70점 차이가 난답디다.

그러면 작년 재수생은 예상보다 몇 점이 마이너스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20점 손해 난대요. 금년 아이들은 많게는 6, 70점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 애들이 점수가 아니고 석차 순으로 대학을 여기저기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못되었다고 구구절절이 사과를 하고 뭔가 해결을 해도 시원찮은데 잘못된 것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창의력과 사고력을 보는 것이라라고 했는데 과거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창의력, 사고력 기르는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왜 하며 현장하고 동떨어진 문제를 내고서 뭘 잘 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3, 40년 동안 했다면서 이런 엉뚱한 사고를 하는 대학교수진들, 이렇게 현장

감이 없는 대학교수진들을 출제위원장과 총괄부위원장으로 모셔 놓고 200명 중 고등학교 선생은 10명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평가원장 답변해 주시고 출제위원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揆澤 직답을 요구합니까?

○金貞淑 委員 직답이에요.

○委員長 李揆澤 평가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金貞淑 委員 이것 총리산하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를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우선 金貞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희수 교수님을 이번에 출제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앞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안희수 위원장님이 200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출제위원장을 하셨을 때 그때 상위 50% 100점 만점에 77.5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표……

○金貞淑 委員 지금 77.5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마나 이게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로 밝혀졌잖아요. 그 얘기는 왜 아까부터 반복하세요? 200명이나 위원으로 넣었다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는 10명을 갖다가 넣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출제위원이 139명이고 139명 중에 고등학교 교사가 10명입니다. 71명의 검토교사는 전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등학교 교사가 81명이 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제가 검토교사로 들어갔던 사람한테 물어보았는데 자기들이 검토한 의견은 1%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출제본부 안에서……

○金貞淑 委員 그리고 위원장은 출제위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왜 아까 본 위원 질의에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139명은 뭐고 200명은 뭘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139명은 출제고 71명은 검토인데 합쳐서 200……

○金貞淑 委員 그렇지요. 그 검토교사들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어느 교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39명 출제위원 중에 교사가 10명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회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학교수가 낼 문

제가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위원님, 저희도 상당수의 고등학교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능능력시험을 내는 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출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려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전문성 높은 고등학교 교사를 파견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없는 한 현장에 있는 교사를 출제 때 파견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안 되었다고 이런 큰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고통과 노력 속에서 피땀을 흘렸다고, 한 번 나온 문제는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나온 문제를 내면 왜 안 됩니까? 토플시험 보세요. 과거에 났던 수백 문제, 수천 문제 중에서 골라 나와도 다 그게 검증되고 실력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야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애들하고 숨바꼭질해요? 한 번이라도 나온 문제는 안 나온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난이도에서 금년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험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어서 각 학습이 끝나고 나서 그때그때 성취도를 보는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쉽게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대학수능능력시험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을 결산하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재는 바로 미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해는 쉽게 내고 어느 해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아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자로서는

누구든지 이것은 교육의 한 개의 틀이고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라든지 수험생들이 쇼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金貞淑 委員**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출제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출제위원장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책임을 묻지는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완전히 실패입니다. 변별력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았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요, 아주 최고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몇 명 골라졌겠지요, 구별되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떤 아이가 더 잘 하는지, 더 못 하는지 다 섞여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모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찾아서 골라냅니까? 이것 완전 실패고요, 내년부터 과외가 극성할 겁니다. 이 실패한 책임을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떻게 질 겁니까? 내가 그것만 묻고 넘어가겠어요. 내가 교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목표 난이도를 정부 측과 의논해서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약 80점 정도로 맞추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金貞淑 委員** 그래서 지금 80점 나왔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출제위원단이 구성되면 이 출제위원단의 고도의 전문적 재량행위로서 거기에 저도 접근을 못 합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서는 적어도 78, 79, 80 정도의 난이도를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金貞淑 委員**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다느니 자꾸 알 수 없는 더 혼미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이것 한 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사기 친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계속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 쉽게 하고 공부 안 시켰는데 ‘늘렸지’ 하고 사기 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했더니 계속 지금 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사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金貞淑 委員**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總括副委員長 成泰濟**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金貞淑 委員** 안 물었어요.

평가원장,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부위원장님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總括副委員長 成泰濟** 저는 한 30일 동안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 총괄부위원장 이화여대 교육학과의 성태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항상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저희가 생각한 예측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황하셔서 가지고 **金貞淑**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년에 출제하지 않았던 참신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수험생 집단의 변화로서 13만명 차이입니다. 그 중 7만 명의 재수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 다음에는 1학기 수시모집 확대로 인해 우수학생들이 미응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출제된 문항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열별 지원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金** 위원께서 교육정책도 비판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수가

아무 능력이 없고 무지하다 해도 30일 동안 139명의 교수하고 72명의 교사가 일한 것을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金**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시험의 난이도를 최저한으로 낮추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어교수님들하고 영어 검토교사들이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퇴소할 때 영어교사 세 분이 저한테 남긴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수능에서 만점 맞은 학생들에게 영어 해석을 시켜 보면 어떻게 만점을 맞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수능시험이 작년도에 출제된 영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듯 하게 느껴졌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게 조정되어 원 출제자의 의도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요즘 영어공부하는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보면 ‘영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책으로 공부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문법도 공부해야 합니까, 숙어공부도 따로 공부해야 합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수능점수를 계속 90점, 100점 맞춰 가지고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李仁基 委員** 지금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總括副委員長 成泰濟** 저는 교육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지금 의장으로부터 **權哲賢** 위원, **金敬天** 위원, **任鍾哲**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李仁基** 위원, **李美卿** 위원, **朴相熙**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金貞淑 委員** 지금 **成** 교수님이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흥분하시는데 제가 사기라고 한 것은 교수님들한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成** 교수가 지적한 것 다 맞아요. 지난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전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현상들을 감안하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사기라고 한 것은 교육당국을 말한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기라고 한 것이지 교수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黃祐呂 委員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순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할 안건이 8개이기 때문에 1인당 5분씩만 써서 각자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는 분들은 일개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행에 조심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田溶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씩이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委員 田溶鶴 위원입니다.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로까지 번져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년센스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논의구조가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접근보다는 이런 식의 논의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점수 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능은 조금전 교육평가원장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77.5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난이도를 유지해 달라는 대전제 아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작년보다는 다소 어렵고 작년보다는 좀 쉽게 출제하자, 그리고 변별력을 좀 보완하자는 큰 틀에서 방향은 옳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출제위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셔서 수능을 치렀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96년에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57.7점이고 이것이 97년부터 즉 상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는 84.2점인데 시험문제를 작년보다는 어렵게 제작년보다는 쉽게 출제한 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출제를 했는데 검토위원들은 대다수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 영역별 문항 초안 검토부터 시작해서 5, 6, 8, 9, 10, 12, 13에 이르기까지 무려 여덟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께서 검토위원들의 검토의견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출제위원장께서는 나중에 답변하실 때 과연 검토위원들의 난이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단계별 검토의견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최종 출제문항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또 한 차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수능은 대학입시를 위한 주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제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석차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은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대학입학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험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수험생들의 사고력을 요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방식의 수능이 출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점을 적절히 조화해서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仁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基 委員 원장하고 부위원장께서는 지적 수준이 대한민국의 최정상 수준에 있겠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總括副委員長 成泰濟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李仁基 委員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고등학교 교육방향을 이렇게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좋은 뜻

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나 자세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總括副委員長 成泰濟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李仁基 委員 답변할 시간 따로 있어요.

(신문자료를 보으면서)

여기 언어영역 시험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모델로 언어영역 12번, 18번, 19번, 20번, 33번 문제, 학교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최고 엘리트 직장에 있는 30대 중반에 있는 사람한테 이 질문지를 주어봤는데 정답이 다 틀려요.

언어영역의 개별문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위치를 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학급에서 40명 중에 1등에서 5등 정도 하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를 소화 못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10등에서 30등 하는 애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칩니까? 문제 읽다보면 손을 들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가 무엇을 묻는지 모를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함정식 문제, 비틀기식 문제다…… 시험을 치면 적어도 어느 한 문제라도 답을 맞힌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답을 맞췄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아닙니까? 언어영역 30문제 중에서 어느 한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원장이나 부위원장께서는 무엇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간 어떤 원칙에서 학습을 시켰고 공부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3학년일 당시에 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4년 전에 2002년도 수능시험의 비중은 대폭 낮추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분위기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어제든 본 위원이 말했지만 학교가 우리를 속였다, 선생님이 우리를 속였다, 사회와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더니 17세, 18세 된 소년·소녀들에게도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동량들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학생과 학부모들, 우리 위원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생을 독서와 학문을 하는 교수님들의 사고와 머리 수준하고…… 교수님들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문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총리께서도 분명히 작년보다는 어렵고 그 앞의 해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문제를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원장, 부위원장 존재 이유가 뭐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시험문제 하나를 내 가지고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교수업과 학생들을 이끌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변별력은 있겠습니까마는 작년을 기준할 때 350점과 280점을 받은 학생들이 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상충부는 구별이 되지만 350점과 280점의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평가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출제위원단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소견을 펴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해왔습니까? 정부에서 모의고사를 못 치게 했지 않습니까?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내고 한다는데 시험을 못 치게 합니까? 이미 4년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칠 때는 수능 정도가 이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내서 모의고사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청의 감시를 피해서 일요일에 비밀로 시험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데 나중에 답변시간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출제 자체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지세요. 물론 부위원장께서는 ‘답답하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평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고도의 학문수준을 요구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다음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새천년민주당 李在禎입니다.

먼저 이번 수능 결과에 불문하고 출제하느라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을 출제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동안 수능 관리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수능 성적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언제부터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갔나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97년12월31일에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9년1월29일에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통로는 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평소에 비공식적으로 서로 연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수학능력자문회의에 대학지원국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국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속해 있는 국무총리실과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행정적인 거리는 있는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원장으로서 이 기구가 다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在禎 委員 결국 이번 수능시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과 불안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것도 역시 행정 체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시나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동의하지 않습니다.

○李在禎 委員 한 10여 년 동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수능시험 출제를 해 오고 변별력을 검토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在禎 委員 이번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해서 과거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禎 委員 또 출제나 검토과정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오히려 더 치밀해졌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서 이번 시험은 좀더 완벽한 시험이 됐어야 될 텐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것은 출제하신 분께……

○李在禎 委員 이 문제는 즉답이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몇몇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을 한 달씩 가두어놓고 어렵게 출제해 온 것이 결국은 문제가 아니냐, 출제방법을 문제은행식으로 바꾸어 불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을 검토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SAT나 ACT 같은 시험처럼 우리도 어느 특정한 날 하루에 일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으로 가지 말고 학생들이 1년에 두세 번쯤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 정말 예상외로 무척 추워서 가슴을 안타깝게 했는데 그날 따라 감기가 들었거나 몸살이 났거나 혹은 신체상 어떤 이상이 있거나 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날 시험을 보고 자기 운명을 맡겨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시험은 실패를 했어도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아닌데 단 한 번에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들이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평가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나중에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수능시험을 연 2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중압감이라든가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두세 번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과생되는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질의와 응답에 있어서 설혹 교수님들이 참기 어려운 질의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관점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국회의원 개인의 질의라기보다도 국민을 대변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玄勝一 委員 금년도에 졸업한 수능응시자들의 실망이나 분노 그리고 금년 수능시험의 파탄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들으면서 저는 과녁이 잘못 맞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에 출제를 잘못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났어도 이러한 파탄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난이도 조절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졸업생과 금년 졸업생하교의 학력 차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령 쉽게 났다고 하면 재수한 학생들은 만점을 맞고 금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그보다 뒤떨어진 점수를 맞음으로써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채점한 결과를 보면 점수분포가 예년보다는 훨씬 정상분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금년 출제가 그렇게 잘못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출제기관이나 출제위원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할 것

이 아니라 왜 이같이 학력 차이를 가져오게끔 했는가 하는, 지난 수년 간의 교육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금년도부터는 특기·적성 중에 하나만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공부를 안 하는 고등학생을 만드는 것이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하고 연습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특기·적성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특기·적성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특기·적성 교수가 있는지,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특기·적성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이러한 특기·적성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敎育의 敎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또 교육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정책이 만들어진 결과가 오늘날 금년도 졸업생의 수능 파탄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李在禎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학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각 대학이 칠 수 없다는 제한을 둔다든가 또 특기·적성을 중시해 왔다면 금년도 졸업생에 대해서만 특기·적성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가해서 성적이 떨어진 불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에서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가지고 희생된 금년도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花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委員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위원입니다.

安希洙 출제위원장과 출제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위로를 드립니다.

출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난이도를 77.5±2.5로 유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항, 채점, 출제자, 반영, 이 네 가지입니다.

우선 문항의 난이도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항의 난이도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측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1차, 2차 시험을 보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난이도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교육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출제자들이 난이도가 이럴 것이다 하고 출제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 원인이 수험생의 변화, 수능 모의고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시험 본 것을 가지고 난이도를 측정해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제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처럼 문항을 문제은행식으로 수년간 축적시켜서 난이도 측정을 하고 신뢰도 검정과 타당도 검정을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점입니다.

사실 원점수를 가지고 학생한테 몇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편차에 의한 표준점수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토풀을 몇십 년 동안 보고 있지만 그것은 बैं크제이면서도 그 자체점수가 표준점수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수준을 측정하고 또 아무 문제없이 수십 년 동안 정확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점수를 가지고 높고 낮고 어렵고 할 것이 아니라 표준점수제 도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누구보다도 출제자의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참여해서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 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를 하셨지만 1년 동안 연구교사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출제자들을 미리 선정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어차피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입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문제는 대학입학시험에 관한 한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고등학교까지의 능력을 보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대학자율권에 맡겨서 학생을 입학시키도록 한다면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올해 시험을 본 학생들한테 우려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면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한 학생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번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당초에 약속한 것을 믿고 한 가지 특기·적성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드리고 또 학생들은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논술·면접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德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 委員 金德圭 위원입니다.

이번 수능결과를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수능 결과 고3학생들의 학력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낮은 학력의 소유자들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과 또 다른 평가를 내고서 수능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난이도, 변별력, 이런 것 가지고 아이들의 전부를, 소위 말해서 전인교육을 시키는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전부를 평가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비판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작년입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문항 속에 답이 나와있으니까 문항만 보고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를 양산해서 400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대학에 지원해서 낙방한 학생이 많이 나왔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엿그제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사과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안쓰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만 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비록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이 아닐지라도 교육전반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비중을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기관과 부단히 접촉해서 난이도를 조절했어야만 합니다.

다음 수능부터는 이 기관과 어떻게 접촉해서 입시방향과 난이도 등을 조절할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李在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리라고 봅니다.

수능은 교육정책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교육전반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왔던 것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학생 개인은 이 시험에 운명이 걸린 것처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 자체로부터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해 왔는데 자신이 익힌 모든 것을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테스트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시험이 끝난 후 후련한 마음으로 다음 일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담당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난이도 수준 유지를 위해서 평가원에 상시 연구체제를 설치하는 문제와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난이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005학년도부터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점수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10월22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05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공청회 때 이미 나왔던 안들입니다.

지금 그 수능시험이 끝난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차분하게 전후를 살펴보고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시험 개선안을 이틀만에 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몇 년간만이라도 별 탈 없이 치러지는 입시를 보고싶은 마음은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고, 특히 자식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교육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수능시험이 준비되고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개편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의 그 구조 속에서라도 제가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오늘 온 국민을 당황케 한 충격적인 수능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속칭 이해찬 1세대라고 표현되는 이 학생들은 특이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수능시험 결과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교육의 실패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시험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이번 수능시험 결과가 작년보다 몇 점 정도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직 안 나왔습니다.

○黃祐呂 委員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점이 평균 70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총점이 그 정도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黃祐呂 委員 그러면 원장님께서 난이도 측정을

80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평균점수만 해도 몇 점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난이도 측정을 좀더 정확히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난이도 측정과 시험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난이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과학적인 난이도입니까? 난이도에 맞추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학교에서 학습지도나 진학지도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흔들린다는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는지 할 때는 즉각 책임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물겠는데, 이번에 난이도 기준을 어떤 대상을 보고 80점으로 정하셨습니까? 이 시험문제를 낼 때는 이번의 시험 대상이 80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신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평년의 학생집단을 모집단으로 생각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험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학생에 맞추어서 시험을 낸다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는 시험틀을 제작하는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중학교 정도의 시험문제를 낸다는 것은.....

○**黃祐呂 委員**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학력수준을 정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열 가지 문제 중에 8개를 맞힐 수 있는 시험문제를 내는 것이 교육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열 가지 문제 중에 8개를 맞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내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지요. 너희들한테 6개밖에 못 맞히게 가르쳤지만 시험문제는 작년 재작년 아이들, 또는 미국, 영국 아이들이 8개는 맞혀야 할 시험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잡니까?

난이도 80점을 이번에 시험보는 수험생한테 맞

춘 것입니까, 추상적인 어떤 학생 집단에 맞춘 것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 出題委員長 安希洙** 과거부터 고3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黃祐呂 委員** 나는 바로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 부모님이 저한테 1등 해라 2등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80점을 받아와라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의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늘 뇌리에 있습니다. 성적을 탐내지 않았습시다.

내가 믿는 나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100개 중에 80개를 맞히면 아버님이 저를 칭찬하셨고, 80점을 못 받아오면 걱정을 하셨습시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걱정한 난이도를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도 내가 믿는 우리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 중 80점을 맞으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대학에서 나를 받아 주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인정한다라는 신뢰가 우리 학생들한테 쌓여야 되는데 지금 시험문제 내시는 선생님은, 너희들은 뭘 배웠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가르쳐 주었는지도 묻지 않는다, 무조건 내가 내는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80점을 맞아라, 나는 80점 받도록 시험문제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의 우리 아버님 말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주셔야겠고, 두 번째로 평가위원장께서는, “나는 고명하신 교수님들에게 문제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상 모든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느낍니다.

○**黃祐呂 委員** 그렇다면 괜찮지만 처음에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 말씀에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생각과 달라요.

평가원에서는 난이도를 제시하셔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도출할 만한 출제위원들을 선정하시고 그 출제위원들을 지시 감독하시고 또 나중에는 검증을 하고 총책임 역시 평가원이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黃祐呂 委員**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역시 행정의

책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우선 가르친 책임을 안 지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셨다는 것이 근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자율적으로 보는 대학입학시험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가르친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르친 선생님들이 위주가 되어서 출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하지 못 하지만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수없이 논의했고 우리 국민들은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걱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한 시험문제를 내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었던 상황을 왜 대비하지 못 하였느냐라는 최종적인 책임을 평가원이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총리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이런 것이 계속되면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의 일관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방법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냉철한 자성의 시간을 갖고, 또 지금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편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을 평가원장과 출제위원장과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세 분이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昌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昌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저는 金成東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成東 원장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이번 수능시험이 출제 당초에 목표했던 난이도보다 현재 예측되는 결과가 너무나 달라서, 특히 시험보는 당일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서 사회에 큰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위한 회의가 역사상 처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출제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문제는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께서는 다른 것은 못 해도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또 앞으로 시험이 없어진다, 박세리만 같아라 하는 이러한 전임 李海瓚 교육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그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언론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朴昌達 委員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만 잘 해도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현 고3 학생은 보충수업도 안 받고 모의고사 응시횟수도 제한 받으며 3년간 수업을 받았습시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내신성적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어서 쉽게 가르치고 쉽게 문제도 내고 작년 수능시험마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분위기에서 공부한 고3 학생의 학력은 자연스럽게 질이 좀 떨어졌고, 일부 학생들은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온갖 경시대회를 쫓아다니면서 공부에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교육 1세대 금년도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출제위원들께서는 문제를 출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겠습니다.

우선 73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고3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신문을 통해서 일부 보았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장하고 총괄 및 영역별 부위원장, 출제위원, 평가위원, 협력위원 선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대학수학능력자문회의 추천을 받아서 원장이 결정합니다.

○朴昌達 委員 그러면 이번 난이도 조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봐서 제가 출제 현장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朴昌達 委員 어느 누군가 이번 출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아픈 가슴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金成東 원장이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말씀드렸고, 아까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출제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채점결과가 나오면 그때 더 심층적으로 해서 12월까지의 모든 것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입시제도는 계속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아이들 망하게 이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점수를 어떻게 더 보완해서 각 대학에 보낸다든지 각 고등학교에 보내서 진로 지도하는데 참고하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안 합니까?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질 일이 많아요.

아까 우리 玄勝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의 난이도 가

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두고두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걸려있는 현상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단기적으로 당면과제는 어떻게……

○金貞淑 委員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고 이것 다 하실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적으로는 입시생들이 진학에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제도적인 것 검토는 나중에 하세요. 계속 어제, 오늘 정책이 막 나오던데 현 정부는 매일 새로운 정책만 발표해요. 실시도 못하면서 계속 발표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킵니다.

제도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 초점을 여기에만 맞히십시오.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표로 와 계시는데 저는 교수님들하고 논쟁하기 싫어요. 교수님들이 지금 우리의 논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로 시험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정도이지 이 책임은 현 교육 당국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차관님,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면 21일 다시 나오셔서 2차 수능에 대한 대책보고를 받을 때, 그날 국무조정실장도 나오니까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문제 등을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金貞淑 委員 그런데 부총리는 왜 안 나오셨어요? 난 차관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도 못할 사람이 왜 나와요? 부총리는 어디 가고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李揆澤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韓完相 부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오늘 지방교육청 순서가 있어 수행한다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듣고 위원장인 제가 승낙해 주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인데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成東 교육과정평가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李在禎 위원님께서 서면답변하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玄勝一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 평가원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金花中 위원님 말씀에……

○金花中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당장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정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연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감사합니다.

다음, 金德圭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委員長 李揆澤 안 계신 위원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黃祐呂 위원님께서 난이도 측정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그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사전에 그 수험 대상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저도 100% 찬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상설기구가 생기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수험 대상자인 고3 학생에게 프리 테스트를 하여 유형을 소개하고 그 타당도, 난이도, 변별력을 사전에 점검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아까 李在禎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원장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고 행정상으로는 총리실인데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를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국가공공기관이 무슨 사조직입니까? 어떻게 비공식으로 서로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 말씀은 일일이 공문으로 지시 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金貞淑 委員 말도 안 되지요. 지금 국가기관과 기관끼리 일을 하는 것은 상급 하급으로 나누어서 위계질서가 있게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교육행정을 하면서 엉뚱하게 비공식 협의를 해서 일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당장에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비공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현 정부

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표현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貞淑 委員 아니, 지금 비공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사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용한 사조직이나 폭력배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들끼리 비공식 협조를 합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어야지 그런 답변은 안 된다는 거예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알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원장님은 오늘 책임을 교수단에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안 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우선 어떻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분들을 출제교수단으로 해서 시험출제 해 달라고 말긴 것 자체가 원장님의 실수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현실감 있게 얘기했지만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암기식 교육, 시험문제도 그냥 쉽게 찍을 수 있게 교육을 시켜 놓고, 이 시험문제를 보면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해서 시험문제 보다가 뒤에 답 찾다가 다시 또 본문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 다 뺏기는 식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도 모자라고 울고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그렇게 안 시켜 놓고 시험을 그렇게 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단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뽑아다가 했으면 시험문제 이렇게 안 내요. 아이들이 걱정선인 80점을 맞게끔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서 내는 것이지요. 그 책임을 원장이 지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문성 있는 교수단한테 맡겼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제 질의에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黃祐呂 위원님 질의에는 약간 흐리셨는데 어떤 태도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도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저도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행정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밝

힐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못 알아들겠어요.

○黃祐呂 委員 원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2000년4월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99년4월에 실시했던 모의수학능력시험문제를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즉 현 3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잘 ……

○黃祐呂 委員 이것을 몰랐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黃祐呂 委員 그때 인문계의 경우는 27.1점이 낮아졌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34.5점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교육평가원에 자료로 나왔어야 될 텐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것을 모르셨군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가 지금 재학생의 학력 격차가 있다고 해서……

○黃祐呂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평가원에서 평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또 2001년3월에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문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졸업생에 비해서 평균 40.1점이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조사했던 것보다 13점이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걱정해 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평가원에서 수능시험 내기 전에 그러한 사실도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5개 사설학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하고 본인들을 모셔서 그 의미를 다 수집했습니다.

○黃祐呂 委員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그것을 수집해서 나중에 목표 난이도를 한 80점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출제위원장들께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런데 사설 입시기관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그분들도 다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이런 사실

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黃祐呂 委員 아니지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광범위하게 현재 학생들의 학력이 어떤 것인가를 아신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해야 되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런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金貞淑 委員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사설기관이나 운운하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그것을 갖다가 다 하고 있어요. 대성학원이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그 자료가 전국의 대학이고 고등학교에 다 가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黃祐呂 委員 출제위원장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시험을 출제하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제가 金成東 원장님과는 이번 출제위원장을 의뢰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제 느낌으로서는 이번 원장님처럼 과거 자료를 완전 분석해서 그 경향이라든가 각 문항별 성격을 전부 다 파악해서……

○黃祐呂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장님께서 우리 평가원장님으로부터 받으신 지시내용과 자료를 1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지금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저도 네 번을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한 번도……

○黃祐呂 委員 지금 가져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출제위원들도 검토위원도 다 감탄하면서 이것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

○黃祐呂 委員 글썄, 감탄하시고 잘하셨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출제위원들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黃祐呂 委員 아니,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出題委員長 安希洙** 여기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모든 것을 완벽한 절차와 넉넉한 정성으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국민들의 공금은 더해지기 시작하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리 주십시오.

○**委員長 李揆澤** 본회의가 오후 5시 30분에 개의됩니다.

○**李仁基 委員** 저도 답변에 대해 질의할 것이……

○**委員長 李揆澤** 질의하세요.

○**李仁基 委員** 조금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정리하는 뜻에서 방금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 기록을 좀 남기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黃祐呂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는 지난 6월 평가원에서 42만 명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있습니다.

○**李仁基 委員** 그때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評價副委員長 南明浩**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李仁基 委員** 모르면 몰랐다,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뭐 좋습니다. 질의를 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2002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評價副委員長 南明浩** 학업성취도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재학생과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李仁基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답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답을 해요.

원장님께서 지난 6월 42만 명의 고3 학생들을 평가해 보니까 학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학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어떤 비교 준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李仁基 委員** 제가 이 보고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갖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못하겠으면 못해도 좋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다른 때의 고3 학생과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학력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李仁基 委員** 평가원장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1년도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아직 인식 못 하고 있습니까?

출제위원들에게 물론 출제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마는 이번에 비교해 보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예년보다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출제위원장님께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당연히 했습니다.

○**李仁基 委員** 떨어지지 않았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이런 학력 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예견이 되기 때문에……

○**李仁基 委員** 얘기했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 이 세대들은 이해찬 1세대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습니다. 정상화의 내용은 학교 내신성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한 번을 쳤고, 고3 때는 한 차례도 모의고사를 치를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출제위원들에게 해 줬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이 자료에 전국을 커버하는 모의고사 자료가 없다는 말은 결국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모집하는 南明浩 부장이 평가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李仁基 委員** 세 번째,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사설 모의고사가 전면 금지되어서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못하게 교육 받았다는 얘기를 해 줬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런 것은 과학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李仁基 委員** 그러면 결과를 묻고 끝을 매듭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이 확대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委員長 李揆澤** 쉽게 얘기해서 과외열풍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이번에 한겨레신문에 어느 교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출제를 하면 사교육의 요령을 강습받는 것보다도 학교에서의 교실수업이 토론식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 학교 공교육의 권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도를 봤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그래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5시 30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金成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1일 2차 대학수능시험 관련 보고 할 때 다시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曹正茂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관련보고를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자, 수능 출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돌아가시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 관계직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어떤 위원님의 말씀이 과격해서 아마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출제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로 현 정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절대로 출제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揆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委員長 李揆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심사에 앞서 법안개정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정부를 대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존경하는 李揆澤 위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학교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2005년 이후의 재원분담에 관하여는 2004년12월31일까지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원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개정안의 특례규정이 의무교육경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상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동조 제2항에서 의무교육 외의 교육관련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경비의 부담주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나 분담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경비부담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본법과 시행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의 특례규정과 같이 기본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시행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먼저 개정하여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순

서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이 개정안이 현행법상 의무교육기관의 비용분담방법 중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이 현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의 중학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봉급교부금을 교부하고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여 임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용분담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의무교육기관의 비용분담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재검토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 제12조 본문에서 “2005년도 이후의 부담에 관하여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004년 12월31일까지 이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부처가 협의하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부처의 내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이에 해당하는 법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대상 학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정안 제12조 본문에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학교를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에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시 지역 중 이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기존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2002년 이후 신설되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이 특례규정을 두는 취지가 이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의 신설학교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학교를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라고 명시하여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개정안 부칙 제2항에서는 2004년도부터 증액교부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증액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2004년부터 중학교의 입학금·수업료가 책정되지 않는 관계로 증액교부금의 산정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바, 거기에 맞추어 자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분담방법을 200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정하는 특례규정과 부칙 제2항은 2004년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이러한 비용분담방법을 지속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디만 예산관련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9조에 의거 교섭단체 간사 간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설훈·김경천·임종석·전용학·김화중·김성호 의원 외 20인 발의)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만제·안경률·김기배·박혁규·이성현·서청원·박종희·강인섭·정인봉·정병국·심규철·김문수·이방호·손태인·최연희·윤경식·황우여·조정무·이인기·전재희·이윤성 의원 발의)

(18시39분)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李在禎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議員 李在禎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의 연차적인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래 전면 확대 실시는 전 국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교육복지 실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만사지탄의 느낌마저 듭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현행 법상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소요액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여 2004년까지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이 이미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의무교육경비에 관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 체계상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재원분담방안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함께 그 기본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尙元鍾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조금 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李在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議員 제안 설명서가 위원님들께 다 돌아가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順泳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順泳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법 제1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 연령 6세 미만인 만5세 유아들이 유아교육진흥법상 규정된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대상 학원을 다닐 경우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 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대상 학원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실제 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유아대상 학원은 유아 미술학원으로 보여지며 동 미술학원에 다니는 취원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2000년 기준으로 전체 만5세아 70만 7000명의 20%인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아 미술학원에 취원 중인 아동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이들을 무상교육에 포함시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는 예산배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 체계상의 문제 및 행정 집행상의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법령 체계상으로 볼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 취지가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미처 아우르지 못한 부분에 자유로운 학원의 설립과 과외교습을 통하여 이를 보완 하자는 측면이 큰 반면 이 개정안은 일부 만5세 아이이라도 이들을 교습하는 학원에 정부가 교육비 등을 무상으로 직접 지원, 개입함으로써 동 법의 당초 법률 정신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는 무상교육 규정이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에 있음이 아니고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중학교 무상의무

교육을 포함하여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는 공교육확대정책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서로 상이한 입법성격을 가진 양 법률 내용을 무상지원 차원에서 혼합시킨 결과가 되어 기존 법률체계를 요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개정안 문구에는 명확한 표현없이 제15조의2제1항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대상학원의 교습은 무상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어 결국 만5세아가 다니는 유아대상학원의 교습을 무상으로 하자는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지 기존 공교육체계의 사교육영역에 대한 확대인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상호 입법체계가 다른 현행법 체계하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이며 따라서 세부적으로 따질 때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실제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유아대상학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바 알려진 대로 유아미술학원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 다른 유아대상학원 예컨대 음악학원·속셈학원·태권도학원·바둑학원 등 또는 선교원의 자체유아교육시설 등에서 유아대상학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외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유아대상학원들을 이 개정안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저소득층지원 차원이 아닌 국가의 공교육 확대 성격이 크게 드러나 현재의 교육여건상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미술학원이 개정안에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원에 준하는 것인지 보육시설에 준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표현처럼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대상학원이라고 할 경우는 보육시설에 준하는 유아대상학원은 제외되는 결과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및 유아미술학원은 설립기준,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운영체계, 교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상이한바 개정안 취지대로 정부의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하여는 이들에 대한 제반

여건에 대한 정비 등 합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때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薛勳 委員 3건이 아니라 2건은 분류해서 1개의 법만 별도로 대체토론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李在五 議員 제가 발의한 법안은 대체토론 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주시지요.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나머지 두 법은……

○李在五 議員 문제가 없는 것은 소위에 넘길 것 없이 의결하지요.

○李在禎 議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2항, 3항은 의결하고 4항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소위에 넘기도록 하지요.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薛勳 委員 잠깐만요. 토론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안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로 넘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록상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없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李在禎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신 玄勝一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8시51분)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 계연도교육인적자원부소관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인 李在禎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李在禎**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李在禎 위원입니다.

제225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2002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금일 오전 金貞淑 위원, 金花中 위원, 薛勳 위원, 黃祐呂 위원과 본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질의사항과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조정을 거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33개 사업예산에 총 1752억 3100만 원을 증액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증액의결한 예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보상금 8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마련한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에 제출되는 정부원안 중 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술연구구성사업비 중 기초학문육성예산 등 총액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기준과 지원대상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조속히 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증액의결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李在禎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金德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德圭 委員**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증액사업으로 33개 사업을 추려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여기에 2개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강원대학교의 경영대 2호관 신축공사입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2001년 예산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했고 2002년 공사비로 4억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2002년 예산에 총액으로 20억을 반영해 주어야 이 사업이 목적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 위원회에서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대책을 숙의했습니다마는 교육대학에서 영어교육 지도력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청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것 같은데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의견조정이 잘 안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에서 3억 7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玄勝一 委員** 방금 金德圭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11개 전국 교육대학총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원어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종전대로 6억으로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했습니다.

그동안 원어민 강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5년 동안 6억씩 지원해 왔는데 그것이 원래 5

개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기간이 새로 갱신되는데 예산을 2억만 책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이상 예년대로 3억 77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억으로 해 달라는 金德圭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하면서 여기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덧붙여 지금 金德圭 위원님과 玄勝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次官 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보전수당 차액 보전, 보전수당 신설, 지방대학 육성, 교대 원어민 강사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증액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부영 의원 대표 발의)(조부영·강창희·김종필·김종호·김학원·송광호·오장섭·이양희·이완구·이재선·이한동·안대륜·원철희·정우택·정진석·조희욱·함석재·강숙자·김용환·한승수 의원 발의)

7.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황우여·권철현·김정숙·박창달·이규택·이재오·조정무·현승일 의원 외 125인 발의)

(18시59분)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趙富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黃祐呂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공청회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 教育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개최의 건

(19시00분)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로부터 공청회 진출인을 추천받아 공청회 계획안을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교원정년에 관한 공청회로서 11월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참 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년월일 : 2001년11월12일

제안자 : 국회의원 이재오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한라나당 서울 은평을 출신 李在五 의원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만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 및 보육시설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교육·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계획이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학원에 다니는 상당수의 만5세 유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아대상학원에서 거의 똑같은 유아의 교육과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8800여 개소에서 54만 명 어린이집 등 보유시설 1만 9000여 개소에서 68만 명, 유아대상학원 8500여 개소에서 56만 명으로 완전히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유치원에 준하는 유아대상학원에 다니는 유아 중 만5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동 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평가
부 위 원 장

南 明 浩

【報告事項】

○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李仁基	教 育	産業資源	한나라당
權哲賢	産業資源	教 育	한나라당
李美卿	教 育	文化觀光	새천년민주당
朴相熙	教 育	科學技術情報通信	새천년민주당
金敬天	文化觀光	教 育	새천년민주당
任鍾哲	科學技術情報通信	教 育	새천년민주당

(11월13일자)

○ 議案回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이재오·김만제·안경률·김기배·박혁규·이성현·서청원·박종희·강인섭·정인봉·정병국·심규철·김문수·이방호·손태인·최연희·윤경식·황우여·조정무·이인기·전재희·이윤성 의원 발의)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이재정·설훈·김경천·임종석·전용학·김화중·김성호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2건 11월12일 회부됨

○ 出席委員(16人)

金 德 圭	金 貞 淑	金 花 中	朴 相 熙
朴 昌 達	薛 勳	李 揆 澤	李 美 卿
李 仁 基	李 在 五	李 在 禎	田 溶 鶴
趙 富 英	曹 正 茂	玄 勝 一	黃 祐 呂

○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전 문 위 원	鄭 順 泳

○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차 관	崔 熙 善
차 관 보	高 在 邦
기 획 관 리 실 장	李 基 雨
학 교 정 책 실 장	李 相 甲
대 학 지 원 국 장	徐 南 洙
감 사 관	李 永 燦

○ 其他參席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 장	金 成 東
2002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출제위원장	安 希 洙
2002학년도대학수학 능력시험총괄 부 위 원 장	成 泰 濟